

제주도 뱀신화 연구

양현숙*

<목 차>

1. 서론
2. 행위자적 역할을 통해 본 표층구조
3. 기호학적 정방형을 통해 본 심층구조
4. 제주도 뱀신화의 문화적 의미
5.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칠성본풀이>와 <도산 여드렛당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 뱀신화의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뱀은 부활과 재생의 상징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토의 업신앙과 제주도의 뱀신앙은 모두 뱀을 신으로 모시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본토의 업신앙의 경우는 뱀을 재물신으로 관념했었다는 것을 설화 자료를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만 제주도의 뱀신앙은 신앙과 함께 신앙의 숭배 대상인 뱀신에 대한 본풀이가 무속 제의에서 구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제주도에 전해지고 있는 뱀신 본풀이는 특별한 문화적 의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경기도 부천시 석천중 교사

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인간은 자연의 토대 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자연의 바탕 위에서 인간적인 몸짓으로 그 나름의 물질적, 정신적 산물들을 창조해 내는데 이를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해 드러나게 마련인데 이 ‘무엇인가’는 기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설 때 ‘신화’ 또한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기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화’라는 기호를 해석한다면 그 기호를 만들어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 역시 문화를 구성하는 기호이자 문화에 대한 해석소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자질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신화 이해의 핵심이라는 전제 하에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의 행위가 서사 텍스트 내에서 갖는 주도적, 종속적 의미를 밝히고 신화의 양분론적 가치의 대립에서 통합에 이르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문화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리츠카에 따르면 신화의 등장인물의 행위에 따른 행동 범주에 따라 신화의 의미 층위가 결정된다. 신화에서 등장인물의 대립되는 행위에 따라 텍스트를 읽다 보면 신화의 대립된 가치관을 찾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의 대립된 사고나 가치관이 등장인물 사이의 대립된 행동을 낳고 이것이 바로 신화의 서사 체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의 본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추출된 의미 층위에서 의미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정방향에 의해 드러난다. 또한 기호학적 정방향에 의해 분절된 하나의 의미 층위는 다른 의미 층위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된다. 대체로 하나의 의미 층위에서의 작용이 주도적이고 또 다른 의미 층위에서의 작용이 종속적일 때 이러한 주종 관계를 만드는 맥락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것 역시 문화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신화를 분석하여 기호학적 정방향으로 기술한 후 의미 층위 간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신화의 문화 체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에 따라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를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뱀신화에 드러난 문화 기호 체계를 통해 그 문화적 의미를 밝혀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문화의 개념은 신화 텍스트를 산출하는 메커니즘으

로 국한하기로 한다. 제주도 뱀신화 분석을 통해 의미를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맥락이 바로 제주도 뱀신화의 문화 기호 체계가 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뱀신은 일반신, 당신, 조상신으로 각각 다르게 신격화되어 있어 그에 대한 본풀이 또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글은 제주도의 뱀신화 중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는 각각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도 뱀신본풀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 행위자적 역할을 통해 본 표층구조

1) <칠성본풀이>의 표층구조 분석

<칠성본풀이>의 줄거리를 몇 개의 문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이 자식이 없어 근심한다.
- 2) 동개남 상저절에서 원불수룩을 드려 여자 아이를 낳는다.
- 3) 아기씨가 일곱 살 되던 해 장설룡과 송설룡은 벼슬을 살려 간다.
- 4) 아기씨를 고무살장 안에 가두고, 구멍으로 밥을 받아 먹게 한다.
- 5) 아기씨가 고무살장 안에서 빠져 나와 길에서 헤맨다.
- 6) 아기씨가 원불수룩 드린 법당의 대스증을 만난다.
- 7) 대스증이 아기씨를 오장삼에 싸서 돌팡돌 아래 묻는다.
- 8) 장설룡과 송설룡이 중의 소행임을 알자 대스증은 달아난다.
- 9) 장설룡과 송설룡은 돌팡돌을 파서 아기씨를 찾는다.
- 10) 장설룡과 송설룡이 아이 뱀 아기씨를 무쇄설갑에 놓고 바다에 버린다.
- 11) 물이 세어서 무쇄설갑이 제주도에 들어가지 못한다.

- 12) 무쇄설갑이 함덕 서모오름 팽풍여 알 썩은개로 올라간다.
- 13) 일곱 잠수와 송영감이 무쇄설갑을 열어 본다.
- 14) 무쇄설갑을 열자 뱀 여덟 마리가 나온다.
- 15) 일곱 잠수와 송영감이 재수 없다고 뱀을 던진 후 병이 난다.
- 16) 칠성새남으로 병이 낫고 천아거부가 된다.
- 17) 칠성당을 만들어 아기씨와 자식들을 위하니 함덕 마을이 부촌이 된다.
- 18) 아기씨와 일곱 자식드려 도성 안 칠성굴로 들어 간다.
- 19) 송대장 부인이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을 모셔 부자가 된다.
- 20) 관원이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에게 침을 뱉고 병이 난다.
- 21) 칠성새남을 하여 관원의 병이 낫는다.
- 22)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은 각기 차지할 곳을 정한다.

이야기는 필연적 인과 관계와 선택적 인과 관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연적 인과 관계를 >로 표시하고, 선택적 인과 관계를 →로 표시하면 위의 문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2)→(3>4>5)→(6>7)→(8>9)→(10)→(11>12)→(13>14>15>16>17)→
(18>19>20>21)→(22)

이야기의 표층구조에서는 등장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엮어지는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위의 각 문형을 등장 인물과 그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요약하면 ‘아기씨가 뱀의 모습으로 변하여 신이 되었다’가 된다. 서사 단락 별 각 문형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장나라 장설룡과 송나라 송설룡은 자식이 없어 근심하는 인간적인 존재이다. ‘자식 없음’은 ‘결여’의 상황으로 ‘결여’의 상황은 서사의 출발점이 된다. ‘자식

없음'이라는 유표화된 상황을 무표화 시키기 위하여 장설룡과 송설룡은 절에 원불수륙을 드려 기자(祈子)한다. 원불수륙을 드리는 대상은 부처가 된다. 원불수륙의 결과 여자 아이를 얻게 됨으로써 유표화된 상황을 무표화 시킨다.

(3>4>5)

아기씨가 일곱 살 되던 해 장설룡, 송설룡은 각각 천하공사와 지하공사로 벼슬을 살러 가게 된다. 그런데 아기씨가 여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못한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여자'가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되고, '여자'라는 생물물질적 특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식되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칠성본풀이>에서도 '여자'라는 생물물질적 특성은 '책실'로도 데려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서사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설룡, 송설룡은 아기씨를 두고 벼슬을 살러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아기씨를 마흔여덟 고무살장 안에 가두고 간다. 그리고 느진덕정하님에게 구멍으로 밥을 먹이고 있으면 돌아와서 노비 문서를 돌려준다고 한다. 아기씨는 장설룡과 송설룡에 의해 철저하게 감금·유폐된다. 장설룡과 송설룡이 아기씨를 감금·유폐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이해하면 마흔여덟 고무살장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금기의 파송이다. 그러나 아기씨는 이 금기를 어기고 고무살장 밖으로 나와 길을 잃고 헤맨다. 장설룡, 송설룡과 아기씨 사이에는 '금기하는 자/금기를 어기는 자'라는 대립이 성립한다.

1)~5)의 내용을 정리할 때 장설룡, 송설룡과 아기씨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장설룡, 송설룡

부모/딸

아기씨

감금하는 자/감금당하는 자

금기하는 자/금기어기는 자

(6>7)

고무살장 밖을 나와 길을 잃고 헤매던 아기씨는 원불수륙을 드린 법당의 대스증을 만나게 된다. 아기씨는 세 명의 대스증이 지나가자 살려 달라고 부탁한다. 마지막 대스증만이 이 요구에 응한다. 따라서 아기씨와 대스증 사이에는 ‘요구하는 자/요구 들어주는 자’의 대립이 성립한다. 대스증은 장설룡과 송설룡이 원불수륙을 드린 법당의 스님으로 ‘천리길, 만리길을 뛰어갈 수 있는’ 도술을 부리는 비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초월적 존재이다. 그러나 아기씨는 비자연적인 도술을 부릴 수도 없고, 대스증에 끌려 다닌다. 대스증은 아기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성적, 물질적 욕망을 채운다. 따라서 대스증은 욕망의 주체, 아기씨는 욕망의 대상이 된다. 아기씨는 유화, 당곰아기씨 등 다른 신화의 여주인공들처럼 부모가 정해 놓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집을 떠나 길을 잃고 헤매다 초월적 존재와 사통하여 아이를 갖게 된다. 아기씨는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스증이라는 초월적 존재와의 결합을 통해 신성에 감염되는 것이다. 대스증은 아기씨를 오장삼에 단단히 싸고 물팡들 아래 묻는다. 아기씨와 대스증 사이에는 다시 ‘숨는 자/숨기는 자’의 대립이 성립한다.

아기씨	인간적인 존재/초월적인 존재	대스증
	욕망 없는 자/욕망 가진 자	
	숨는 자/숨기는 자	

(8>9)

벼슬을 중간에 그만 두고 돌아 와 아기씨를 찾는 장설룡과 송설룡에게 대스증은 아기씨가 ‘블르민 들을 듯, 웨민 알 듯한 디 이실 듯’하다고 말한다. 대스증은 아기씨를 숨기고 장설룡과 송설룡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기씨가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장설룡과 송설룡은 대스증의 소행임을 알게 되고, 대스증은 술법으로 천리 만리 도망을 간다.

장설룡, 송설룡과 대스중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성립한다.

장설룡, 송설룡	쫓는 자/도망 가는 자	대스중
	찾는 자/숨긴 자	

(10)

장설룡과 송설룡이 몰팡들 아래에서 아기씨를 찾았을 때 아기씨는 아이를 배고 있는 상태였다. 장설룡과 송설룡은 ‘양반의 집에 스당공스가 났다’며 처음에는 아기씨를 죽이려 한다. 즉 혼전 잉태는 가부장적 사회의 윤리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기씨는 가부장적 사회의 윤리 기준을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자가 된다. 그러나 장설룡과 송설룡은 한 목숨도 아닌 여덟 목숨을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무쇄설잡 안에 넣고 동해 바다에 버린다. 결국 아기씨는 부모가 정해 놓은 금기를 어김으로써 부모 세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버려지게 된다. 장설룡, 송설룡은 아기씨와의 가족혈연적 관계보다 가부장적 사회의 윤리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의 윤리를 지키고자 아기씨를 징벌하는 자가 된다. 아기씨는 부모로부터 버림 받음으로써 유표화되고, 그 자신을 무표화시키기 위하여 부모 또는 제 3자에게 수용되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아기씨는 단순하게 추방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쇄설잡 안에 감금·유폐된 상태에서 추방 당한다. 아기씨는 장설룡, 송설룡이 벼슬 살러 가기 전에 마흔여덟 고무살장 안에 가둬 놓은 것과 같은 감금·유폐를 두 번째 경험하게 된다. 이 감금·유폐는 <시준곳>의 당곰아기씨가 잉태 후 동굴 속에 유폐된 것과 같은 고난이다.

아기씨 감금·유폐의 의미를 인류학의 도움을 얻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인류학에서 ‘통과제의’는 통과제의를 거치게 될 대상의 ‘존재론적 위치의 변화’를 의미한다. 모든 통과제의를 각각 길이가 다른 세 개의 단계로 크게 구

분되는데 ‘준비-피안으로의 여행-새로운 탄생’이 그것이다.¹⁾ 이에 따르면 아기씨는 통과제의를 거치게 될 대상으로서 부모가 보호해 주는 세계를 벗어나 무쇄설캅에 담긴 상태로 바닷물에 버려짐으로써 속인(俗人)들과 격리되어 ‘죽음의 영역’을 통과하는 통과제의적 여행을 시작하는 입문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아기씨가 무쇄설캅 안에 담겨 바다 위를 떠다니게 되는 것은 통과제의 과정 중 ‘피안으로의 여행’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장설룡, 송설룡과 아기씨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성립한다.

장설룡 · 송설룡	버리는 자/버림 받는 자	아기씨
	추방하는 자/추방 당하는 자	
	감금하는 자/감금 당하는 자	

(11>12)

아기씨가 감금·유폐된 무쇄설캅은 제주도에 도착하지만 물이 세어서 들어 가지 못한다. 프레이저에 의하면 이방인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²⁾ 즉 아기씨가 제주도 밖에서 제주도 안으로 들어 가려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무쇄설캅 안에 아기씨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주도 본향 귀신과 아기씨가 쟁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³⁾ 아기씨는 제주도 본향 귀신의 기가 너무 세어 쉽게 제주도에 입도

1) 시몬드 비에른느, 이재실 역, 『통과제의와 문학』(문학동네, 1996), 11~13쪽.

2) 아기씨(무쇄설캅)는 제주도 본향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방인이다. 프레이저는 토착민들은 종종 낯선 방문객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방인드려 들어오기 전이나 최소한 그드려 주민들과 마음대로 어울리기 전에 그 지방 토착민들은 종종 이방인들의 주술력을 해소하고 그드려 방출한다고 믿는 유해한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또는 이방인들을 둘러싸고 있다고 믿는 오염된 공기를 소독하기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그들을 받아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기씨가 담긴 무쇄설캅이 제주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제주도 본향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아기씨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역, 『황금가지』(한겨레신문사, 2003), 233~240쪽 참조.

하지 못하다가 결국 ‘함덕 뽕풍여 아래 썩은개⁴⁾’로 들어간다.

11)~12)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기씨와 제주도 본향 귀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이 성립한다.

아기씨(무쇄설갑) 거부 당하는 자/거부하는 자 (제주도 본향 귀신)
수용되는 자/수용하는 자

(13>14>15>16>17)

함덕 마을의 일곱 잠수와 송영감이 제주도에 올라 온 무쇄설갑을 발견한다. 처음에 일곱 잠수는 무쇄설갑을 가지겠다고 싸우다가 송영감의 중재로 함께 열어 보기로 한다. 무쇄설갑 안에는 아기씨가 아니라 큰 뱀 한 마리와 작은 뱀 일곱 마리가 있다. 아기씨가 사람이 아닌 뱀으로 변신하고, 그렇게 변신한 아기씨가 낳은 것도 사람이 아닌 뱀인 것이다. 우선 아기씨가 먼저 뱀으로 변신한 후 아이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를 여덟 명이나 낳았다는 것은 ‘다산(多産)’인데 뱀은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동물이다.⁵⁾ 따라서 아기씨가 ‘다산(多産)’하는 속성을 지닌 뱀으로 변신한 후 여덟 마리의 뱀 자식을 낳는 과정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가부장적 사회의 윤리를 어겨 잉태한 죄로 무쇄설갑 안에 감금·유폐된 아기씨가 그 안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씨도 아이도 모두 뱀으로 변신했다는 점이 상징하는 것은 아기씨가 감금·유폐되어 버려진 공간의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리치에 따르면 변환의 종교적 계기는 시간적·공간적·인식적 결계(結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결계(結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신성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⁶⁾ <칠성본풀이>에서 변환의 종교적 계기는 부모

3) 김영일, 『한국무속신화 서사모형론』(새종출판사, 1996), 250~271쪽 참조.

4) 제주도 지명으로 함덕리와 북촌리 경계에 있는 산의 앞바다를 가리킨다.

5) 미르치아 엘리아데, 『황금가지』, 153~154쪽 참조.

에 의해 무쇄설갑 안에 감금·유폐되어 버려진 바다, 즉 공간적 결계(結果)에서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다.

아기씨는 무쇄설갑 안에 감금·유폐되어 바다 위로 떠 다녔는데 바다라는 공간은 이전 아기씨가 보호 받았던 부모의 세계도 아니고, 아기씨가 새롭게 정착하는 세계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세계와 새롭게 정착한 세계 사이에서 아기씨의 생물물질적 특성이 인간에서 뱀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의 중간에 놓이는 바다라는 공간은 현존 질서에 대한 변형적인 자기 희생 또는 질서의 자발적인 자기 해체가 이루어지는 중간 상태에 놓이는 리미널 영역(liminal zone)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 리미널 영역의 중간 상태를 거치면서 아기씨는 뱀이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되고, 그 존재론적 지위가 완전하게 변모하게 된다.⁸⁾ 또한 아기씨는 뱀으로 존재론적 지위가 변모함과 동시에 신성을 획득하게 된다.⁹⁾ 왜냐하면 아기씨는 세속적인 조건에 있어서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이는 곧 ‘천국의 획득’, ‘신성의 획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⁰⁾ 아기씨가 신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이후 다른 등장 인물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일곱 잠수와 송영감은 뱀을 보고 재수 없는 것을 봤다며 던져 버린다. 그 후 일곱 잠수와 송영감은 가슴병과 눈병을 얻지만 고칠 방법이 없다. 이는 무녀에게 문복을 하니 ‘놈의 나라에서 온 신’을 박대한 죄목이라 한다. 일곱 잠수와 송영감은 신을 신으로 대접하지 못한 죄로 병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칠성새남¹¹⁾을 하여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 그 후 마을에 신을 위로하기 위한 당을 짓자 함덕 마을은 부촌(富村)이 된다. 아기씨와 아기씨의 일곱 자식들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으로써 박대하면 병을

6) 원성하, 「뱀변신설화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59쪽 재인용.

7) 빅터 터너, 이기우, 김익두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현대미학사, 1996), 101~145쪽 참조.

8) 미르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종교의 본질」(학민사, 1995), 143~170쪽 참조.

9) 대스중과의 사통을 1차적 신성 감염이라 한다면 이 1차적 신성 감염을 계기로 ‘인간→뱀’으로 존재론적 위치 변화는 2차적 신성 획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 미르치아 엘리아데, 위의 책, 175~178쪽 참조.

11) 뱀을 죽인 탓으로 앓았을 때 죽은 뱀을 살려내고 앓는 병을 낫게 하는 곳의 이름이다.

주지만 잘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해 주는 신이다. 추하고 재수 없다고 여겨 박대하면 병을 주지만 신성하다고 여기고 신으로 대접하고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해 주는 양면성을 지닌 아기씨의 행동은 아기씨의 형상인 뱀이 지닌 양가적 성격과 관련을 가진다. 또한 자신들을 박대하는 사람들에게 병을 주는 것은 아기씨와 일곱 자식드려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자질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뱀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시련을, 그 시련을 주는 사람들을 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기씨는 인간에서 뱀으로 변화하기도 했지만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3)~17)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기씨, 일곱 자식	신/인간	송영감, 일곱잠수
	자연/인간	

(18>19>20>21)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은 도성 안 칠성굴로 간다. 송대장의 집앞에 누워 있는데 송대장의 부인이 치마에 싸서 광에 가서 모셨더니 송대장 집이 부자가 된다. 관원의 눈에도 띄는데 관원은 더럽고 추잡한 것이라면서 침을 뱉는다. 관원은 입병에 걸린다. 관원 역시 무녀에게 문복을 하니 '외국의 신에게 속절없는 언동을 한 죄목'이라면서 칠성새남을 하라고 한다. 송대장 부인과 관원은 모두 뱀의 형상을 한 아기씨와 일곱 자식을 보았지만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결과를 얻는다.

18)~21)을 다음과 같은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송대장 부인	신을 모시는 자신을 박대하는 자	관원
	부자가 되는 자/병을 얻는 자	

송대장 부인과 관원의 이와 같은 대립에서 아기씨와 일곱 자식은 위하고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하지만 위하지 않고 박대하면 병을 주는 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2)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은 이후 각자의 위치를 찾아 좌정한다.

제주도 본풀이의 신들은 일정한 신격화 과정을 거쳐 신직에 취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는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살려내는 시련을 겪고 난 후 신직에 취임하게 되고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은 대별왕과의 꽃피우기 내기에서 승리한 후 신직에 취임하게 된다.¹²⁾ 그런데 신직에 취임하는 것은 신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는 ‘서천꽃밭’이라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천지왕본풀이>에서 소별왕은 ‘이승’이라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신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보통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 즉 신이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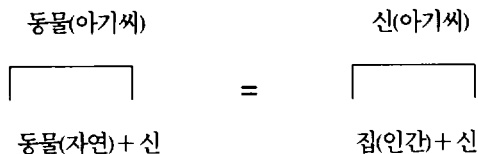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 역시 무체설갑 안에 감금·유폐되어 바다 위를 떠돌며 존재론적으로 변화하는 시련을 겪고 신성을 획득한 후 인간이 대접하면 부자가 되게 해 주고 푸대접하면 병을 주는 권능을 발휘하는 신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신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각자 확보하게 된다.

아기씨와 일곱 자식드려 차지하는 공간은 모두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의 일부이다. 그렇지만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비록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신성한 공간으로 성화(聖化)된다. ‘거룩한 구역’은 세속적 세계가 초월되는 곳으로 신들과의 교섭이 제의적으로 가능한 곳이다.¹³⁾ 일곱챗아기가 ‘구시월(九月) 나민 든정굴 신정굴 진상(進上) 받’겠다고 한 것과 아기씨가 ‘열두시만국(十二新滿穀)을

12) 김영숙,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의 신격화 연구」(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3) 미르치아 엘리아데, 앞의 책, 19~59쪽.

거두왕 안칠성으로 들어상 얻어 먹을로라'라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면 아기씨와 일곱 자식드려 차지한 장소에서 신과 인간의 제의적 교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¹⁴⁾ 곧 아기씨와 일곱 자식드려 차지한 공간은 단순한 인간의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신의 제의적 교섭이 이루어지는 성화(聖化)된 신의 공간이 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뱀의 형상을 한 신으로서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의 일부에 좌절한다는 것은 아기씨가 지상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의 일부를 관장하는 신이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는 아기씨와 일곱 자식드려 가지는 '신+인간+동물'의 속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등가적인 두 개의 모형을 세울 수 있다.



2)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표층구조 분석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줄거리를 몇 개의 문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나주 금성산의 영기가 세다.
- 2) 나주에 부임하는 목사마다 얼마 없어 파직 당한다.
- 3) 새 목사가 말을 타고 나주 금성산을 오른다.

14)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제사나 명절 때 고팡의 쌀독 뚜껑 위에 제물을 차려 고사를 지냄으로써 안칠성을 모시고, 장독대 옆이나 굴나무 아래 기와장을 깔고 그 위에 오곡의 씨를 종이에 써서 놓고 기와를 덮은 후 빗물이 들지 않게 주쟁이(주저리)를 덮어 씨워 정월달마다 철같이 함으로써 밭칠성을 모신다. 고팡과 집뒤 울타리 안에서 신(안칠성과 밭칠성)과 인간의 제의적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집문당, 1986), 157~158 쪽 참조

- 4) 부하가 하마(下馬)하라고 한다.
- 5) 말에서 내리지 않자 새 목사의 말발이 절어 갈 수 없다.
- 6) 기와집에서 머리를 빗는 고운 아기씨가 나타난다.
- 7) 굶을 하니 고운 아기씨가 친구아구대맹이가 되어 나타난다.
- 8) 당에 불을 놓으니 친구아구대맹이가 금바둑 옥바둑 몸에 환생한다.
- 9) 강씨, 오씨, 한씨 선주가 종로 네거리에서 금바둑 옥바둑을 발견한다.
- 10) 금바둑 옥바둑으로 술을 먹지 못하자 쓸모 없다고 버린다.
- 11) 금바둑 옥바둑이 강씨선주 뱃장 아래 탄생하여 배가 뜨지 못한다.
- 12) 굶을 하니 배가 제주도에도 도착한다.
- 13) 멍호부인이 어진 한집님에게 토산 메떼기머루로 가라고 한다.
- 14) 개로육섯도님이 어진 한집님의 팔목을 잡는다.
- 15) 어진 한집님은 더럽다고 하며 은장도로 팔목을 깎아 버린다.
- 16) 어진 한집님이 메떼기머루로 좌정하였으나 대접하는 자가 없다.
- 17) 오씨 아기와 느진덕정하님이 빨래를 하다 왜적에게 겁탈 당해 죽는다.
- 18) 오씨 아기는 시집 가는 강씨 아미 가맛대에 따라간다.
- 19) 강씨 아미가 이유 없이 죽어간다.
- 20) 전새남을 하니 강씨 아미가 일어나 상전의 간장을 풀어 달라고 한다.
- 21) 강씨 아미의 방에 가 보니 작은 뱀이 꼬리를 흔들고 있다.
- 22) 설운 상전을 위로하여 간장을 푼다.

이들 문형들의 인과론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2)→(3>4>5)→(6>7>8)→(9>10>11>12)→(13)→(14>15)→
(16>17>18>19)→(20>21>22)

위의 각 문형을 등장 인물과 그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요약하면 ‘어진 한집님이 시련을 극복하고 토산 마을의 신이 되었다’가 된다. 서사 단락별 각 문형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나주 금성산의 영기가 세어 나주에 부임하는 목사마다 석달 열흘만에 파직 당한다. 나주 금성산의 영기가 센 이유는 이곳에 어진 한집님이 좌정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주 금성산의 영기가 세다’는 것은 어진 한집님의 신적 영기가 세다는 것의 환유적 표현이다. 어진 한집님은 나주 금성산의 신이지만 아직까지 그 모습이 감춰져 있다. 그렇다면 나주에 부임하는 목사들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어진 한집님의 신적 영기를 당하지 못하고 나주에서 살 수 없는 것이다. 즉 어진 한집님에 의해 축출 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呪)에 의해 다스려지든 유(儒)에 의해 다스려지든 한 지역에 토지관(土地官)은 한 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주(呪)와 유(儒)의 대립에서 주(呪)가 승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진 한집님

주(呪)/유(儒)

나주 목사

축출하는 자/축출 당하는 자

(3>4>5)

부임하는 목사마다 파직 당해서 나주 목사 자리가 비었는데도 아무도 나주 목사로 가려하지 않는다. 이때 한 사람이 나주 목사에 자원해서 간다.

새 목사가 부임하여 나주 금성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하인이 하마(下馬)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새 목사는 ‘날보단 더 큰 양반(兩班)이 어디 있겠느냐’며 거부한다. 하인이 하마(下馬)할 것을 권유한 것은 나주 금성산에 좌정한 어진 한집님의 신적 영기를 염두에 둔 말인데 새 목사는 이 충고를 무시한다.

이에 대해 어진 한집님이 자신의 신적 영기로 말발을 절게 하여 새 목사가 움직일 수 없게 한다. 새 목사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어진 한집님은 말발을 절게 만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다. 새 목사는 신에 대한 복종을 거부한 자가 되고, 어진 한집님은 거부 당한 자가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 목사와 어진 한집님 사이에는 유(儒)와 주(呪)의 대립이 성립되기도 하여 유(儒)와 주(呪)의 대립에서 주(呪)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진 한집님

신/인간

새 목사

주(呪)유(儒)

거부 당한 자/거부한 자

재앙을 주는 자/재앙을 받는 자

(6>7>8)

새 목사의 눈 앞에 어진 한집님이 머리를 빗는 고운 아기씨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천구아구대맹이(아가리가 하늘에 붙은 큰뱀)이 되어 나타난다.¹⁵⁾ 그 모습이 감추어졌던 어진 한집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어진 한집님은 여자에서 뱀으로 변신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새 목사는 어진 한집님이 여의주도 물고 있지 않다면서 보잘 것 없는 신으로 격하시킨 후 정포수와 정스령을 시켜 어진 한집님이 있는 당에 불을 놓는다. 어진 한집님은 금비독들, 옥비독들의 몸에 환생하여 종로 네 거리에 떨어진다. 새 목사와의 대결에서 어진 한집님이 패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목사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어진 한집님은 자신이 차지하던 공간에서 축출 당한다. 이를 그레마스의 서술 체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어진 한집님

신/인간

새 목사

주(呪)유(儒)

패배자/승리자

쫓겨 난 자/쫓은 자

15) <토산 여드렛당본풀이> 뿐만 아니라 제주도 뱀신화에서 뱀신의 여인변신화소는 일반적이다.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 <차귀당본풀이>, <월정 본향당본풀이>에서도 여인이 뱀신이 되거나 뱀신이 여인으로 변신한다. 또한 중국의 창세 신화에 나오는 여신(女神) 여와(女媧)의 몸체가 뱀이었다는 것,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이자 최초의 여자인 릴리트(Lilith)도 뱀이었다는 것을 통해 뱀을 여자로 관념하는 것이 동서양에서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진 한집님이 새 목사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것은 새 목사로 대표되는 나주 지역에서 신으로서의 권능을 상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진 한집님은 새로운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써 신으로 대접 받던 자신의 공간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이는 어진 한집님에게 다가 온 시련에 해당한다.

(9>10>11>12)

제주도 강씨, 오씨, 한씨 선주가 서울에 진상하러 왔다가 강씨 선주가 종로 네 거리에 떨어진 금바둑들과 옥바둑들을 발견한다. 강씨 선주가 주운 금바둑들과 옥바둑들은 어진 한집님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 시킨 것이다.

세 선주는 처음 보는 금바둑들과 옥바둑들이 신기하여 재물이라고 여기고 술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나 주모는 자기 눈에는 재물로 안 보인다고 술을 주지 않는다. 강씨 선주는 아무 쓸모 없는 금바둑들과 옥바둑들을 던져 버린다. 어진 한집님은 금바둑들과 옥바둑들의 모습을 하고도 역시 신으로 대접 받지 못하는 시련을 겪게 된다.

이에 금바둑들과 옥바둑들은 강씨 선주의 배의 갑판 아래 탄생하여 뱀발을 절게 한다. 어진 한집님이 자신을 신으로 대접하지 않자 배가 뜨지 못하게 흥협을 줌으로써 자신의 신적 권능을 보여 준 것이다. 결국 곳으로 어진 한집님을 달래어 배는 제주도에 도착한다. 강씨 선주가 곳을 하였다든 것은 어진 한집님을 신으로 받아 들였다든 것을 의미한다.

강씨, 오씨, 한씨

인간신

어진 한집님

버리는 자/버림 당한 자

흥협을 받는 자/흥협을 주는 자

리치가 제시한 변환의 종교적 계기에 따라 <토산 여드랫당본풀이>에서도 신성한 장치를 찾아볼 수 있다. 어진 한집님은 신성을 획득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신성이 인정되는 공간에서 축출되어 자신의 신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공간에서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새롭게 신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인식적 결계(結果)가 변환의 종교적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진 한집님은 나주 금성산에서 축출되어 금바둑돌, 옥바둑돌의 형태로 종로 네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종로 네거리라는 공간은 이전 신으로 대접 받던 공간도 아니고 이후 신으로 대접 받게 될 공간도 아니다. 나주 금성산의 신으로 있을 때와 토산 마을의 신이 되었을 때 어진 한집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사람드려 바뀌었다는 것은 어진 한집님의 신성이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진 한집님이 금바둑돌, 옥바둑돌로 일시적으로 변환하여 신으로 인정 받지 못한 종로 네거리라는 공간은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의 중간에 놓이는 리미널 영역(liminal zone)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로 네거리에서 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후 제주도에 입도하여 토산 마을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진 한집님은 종로 네거리라는 리미널 영역에서 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간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새롭게 신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13)

강씨 선주의 배가 제주도에 도착하자 어진 한집님은 온평리 본향당신인 멩호 부인에게 간다. 멩호 부인은 좌정한 신이 없는 토산 메떼기무루로 가라고 한다. 어진 한집님은 외부에서 온 신이지만 멩호 부인은 제주도의 토착신이다. <칠성본풀이>처럼 ‘내(內)/외(外)’의 대립을 볼 수 있는데 어진 한집님은 나주 금성산에서 온 신이기 때문에 외래신에 해당한다. 프레이지에 의하면 남태평양 나누메아 섬에서는 이방인드려 네 군데 신전을 돌아 다니며 신에게 기도를 올리기 전에는 토착민들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¹⁶⁾ 어진 한집님 역시 이방인으로서 토착신에게 받아 들여 줄 것을 허락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진 한집님이나 멩호 부인은 모두 신이지만 어

16) 제임스 조지 프레이지, 앞의 책, 234쪽.

진 한집님이 좌정할 곳을 멩호 부인이 알려 주는 것으로 보아 신의 세계에도 상하 위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멩호 부인이 조종의 파송자라면 어진 한집님은 조종의 수령자가 된다. 어진 한집님과 멩호 부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진 한집님	외래신/토착신	멩호 부인
	조종 받는 자/조종하는 자	
	가르침 받는 자/가르치는 자	

(14>15)

어진 한집님이 토산 메떼기 무루로 가는 도중 신평 하천리의 개로육섯도에 게 길을 물어 본다. 개로육섯도는 길을 안내해 준다는 핑계로 어진 한집님의 손목을 잡는다. 이에 어진 한집님은 더럽다면서 개로육섯도에게 잡힌 손목을 은장도로 잘라 버린다. 개로육섯도는 어진 한집님을 속이는 자이다. 어진 한집님은 스스로 자기 손목을 자른 것으로 개로육섯도의 속임수에서 빠져 나온다. 어진 한집님은 개로육섯도에게 성적 재앙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어진 한집님에게 닥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신으로서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신의 공간에서는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어진 한집님은 더럽혀진 몸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시련을 극복한다. 이를 그레마스의 서술 체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어진 한집님	여신/남신	개로육섯도
	외래신/토착신	
	속는 자/속이는 자	
	재앙 받는 자/재앙 주는 자	

(16>17>18>19)

어진 한집님이 맹호 부인의 가르침을 받고, 개로육섯도의 능욕을 이겨내며 어렵게 토산 메떼기마루에 좌정하지만 누구 하나 대접하는 이가 없다. 이는 신을 모시는 단골이 없다는 뜻이 된다. 단골드려 당에 좌정한 신을 모시지 않는 이유는 그 신의 존재와 위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 어진 한집님은 당신으로서의 존재와 위력을 보여 준 적이 없다. 어진 한집님은 위력을 보여 주지 않아 거부 당한 신이 된다.

어진 한집님

신인간

단골

거부 당한 자/거부하는 자

이에 어진 한집님은 조화를 부려 토산 마을 앞바다에 배를 파선 시킨다. 이때 오씨 아기와 느진덕정하님이 빨래를 하러 왔다가 파선된 배에서 올라온 왜적들에게 겁탈을 당하여 죽어 간다. 결국 어진 한집님은 자신이 마을을 지켜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흉험을 파송함으로써 보여준 것이다. 이때 왜선의 격파, 왜적의 처녀 겁탈은 신에 의해 내려진 신적 재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신이 자신을 대접하지 않은 단골들에게 자신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흉험을 준 것이다.

죽은 오씨 아기의 영혼은 금바둑돌, 옥바둑돌을 제주도에 가지고 들어온 강씨 선주를 원망한다. 오씨 아기가 자신의 죽음을 왜적들의 겁탈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파선 시켜 왜적드려 토산 마을로 올라 오게 한 어진 한집님의 탓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도 오씨 아기의 죽음은 어진 한집님으로부터 파송된 흉험임을 알 수 있다.

강씨 선주를 원망하게 된 오씨 아기는 시집 가는 강씨 아미의 가맞대에 혼령이 되어 따라 가서 빙의(憑依)한다. 그래서 시집 가는 날부터 강씨 아미는 가슴에 '신티람'이 계속 일어나면서 죽어가게 한다. 어진 한집님으로부터 파송된 흉험이 방법은 달리 했지만 강씨 아미에게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강씨 아미가 흉험을 받는 것은 아버지 강씨 선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씨 선주가 종로 네 거리에서 발견한 금바독들, 옥바독들의 영험에 의해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음에도 어진 한집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고 박대했기 때문에 어진 한집님이 오씨 아미에게 흉험을 주었고, 다시 오씨 아미가 강씨 아미에게 흉험을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어진 한집님의 흉험은 강씨 아미를 통해 아버지 강씨 선주에게 파송되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¹⁷⁾

어진 한집님 신/인간 오씨 아기, 강씨 아미, 강씨 선주
 흉험 주는 자/흉험 받는 자

(20>21>22)

죽어 가는 오씨 아기를 살리기 위해 무당에게 점을 치니 ‘놈의 나라’에서 온 신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면서 전새남¹⁸⁾을 하라고 한다. 오씨 아기가 병이 들어 죽어 가는 것은 결국 어진 한집님을 박대한 죄라는 것이다. 이에 소와 닭을 잡아 전새남을 한다. 전새남은 병자인 오씨 아기를 살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드려 박대한 신 어진 한집님을 위로하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아픈 아기씨가 살아나서 ‘방울을 무어놓고 간장을 풀어달라¹⁹⁾’고 한다. 아기씨의 말대로 하니 명주 틈에 작은 뱀이 꼬리를 흔들고 있

17) 신이 숭앙(崇仰)을 받으려면 단골을 정해야 하는데 단골은 ‘신을 전적으로 신앙하는 지정 신앙민’이라는 뜻이다. 신이 단골을 정하는 방법에는 음식을 후하게 대접하는 자를 단골로 정하는 방법, 아무도 대접하지 않으면 온갖 조화와 흉험을 주어 숭앙을 받는 방법, 첫눈에 보이는 사람을 단골로 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토산 여드랫당본풀이>의 경우 강씨 선주의 입장에서 어진 한집님을 처음 보았고, 제주도로 모셔왔기 때문에 첫눈에 보이는 사람을 단골로 정하는 방법에도 해당하고, 마을 처녀들에게 급병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인지기시켰기 때문에 조화와 흉험을 주어 숭앙을 받는 방법에도 해당한다.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130~131쪽.

18) 전새남은 병을 앓았을 때 신을 향해 병을 낫게 해 달라고 비는 곳의 이름이다.

19) 토산당신에 대한 제의 때 심방은 ‘방울친(3~4척 정도의 흰색 천에 4개의 고를 묶어 놓은 것으로 이는 신의 신체(身體)이자 무당의 주술적 도구이다)’을 꺼내 들어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듯하면서 방울친에 만들어져 있는 ‘고’를 한 손에 두 개씩 나누어 쥐고 무악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며 푸는데 이를 방울풀이라고 한다.

어 이를 위로한다. 어진 한집님의 모습이 나주 금성산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처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진 한집님

신인간

(단골)

동물/인간

흉험 주는 자/흉험 받는 자

대접 받는 자/대접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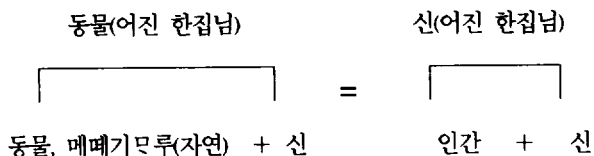
김영일은 당신본풀이는 양항 대립을 이루는 갈등의 원천이 해소되지 않는 이야기로, 양분적 대립의 항목들이 중재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서사가 적층된다는 점에서 ‘한(恨)’이 맺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²⁰⁾ 즉 ‘기아(棄兒)-수용(受容)’의 계기체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당신본풀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진 한집님의 경우에는 나주 금성산의 영기가 센 신이었다가 버림 받았지만(기아/축출) 제 3의 존재에 의해 신직을 부여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흉험 줌) 토산 마을의 당신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수용)는 점에서 ‘기아(棄兒)-수용(受容)’의 계기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김영일의 지적처럼 양분적 대립의 항목을 중재할 ‘기아(棄兒)-수용(受容)’의 계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직접 ‘기아(棄兒)-수용(受容)’의 계기체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어진 한집님은 토산 마을의 처녀들에게 급병과 같은 흉험을 주는 방식으로 신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토산 마을에서 신으로 수용되는 것이다. 이때 어진 한집님의 신으로서의 능력 자체가 ‘기아(棄兒)-수용(受容)’의 양분적 대립을 중재할 계기체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진 한집님은 버려지고, 수용되는 시련을 겪은 후 신성을 인정받고²¹⁾ 때

20) 김영일, 앞의 책, 262~266쪽.

21) 어진 한집님의 경우 서사의 처음부터 신적인 존재로서 등장한다. 따라서 <칠성본풀이>처럼 신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보다는 자신의 신성을 발휘하고 이를 인정받는 것이 서사의 핵

떼기마루에 좌정하여 토산 마을의 당신이 된다. 신은 신적 존재로서 제의적 교섭이 이루어지는 성화(聖化)된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진 한집님은 토산의 ‘떼기마루’라는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떼기마루’는 자연의 일부(산)로 인간의 공간과 대립되는 공간이지만 어진 한집님은 이곳에서 토산 마을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신이 되었다. 즉 동물 형상을 한 어진 한집님은 산에 좌정하여 인간적인 것의 일부를 관장하는 신이 된 것이다. 이는 어진 한집님의 ‘신+인간+동물’의 속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세울 수 있다.



3. 기호학적 정방형을 통해 본 심층구조

이상 표층구조 분석을 통해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행위자적 역할과 행위항적 역할이 밝혀졌다.

등장 인물의 행동은 행위자적 역할과 행위항적 역할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²²⁾ 행위자적 역할은 문맥 속에 드러날 때 ‘본질적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드러나기도 한다. 등장 인물의 ‘본질적 특성’과 ‘행위’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질적 특성’이 ‘행위’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행위’를 통해 ‘본질적 특성’을 추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주인공이 ‘신’인 경우 주인공은 그 본질적 특성에 따라

심을 이루고 있다.

22)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민음사, 2002), 121~122쪽.

‘신적인’ 행위를 한다. 그리고 주인공이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통해 주인공의 윤리적 자질인 ‘선(善)’을 추출할 수도 있다.

본질적 특성은 단순히 한 등장 인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전체적인 문화 체계를 분절하여 살피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텍스트에서 등장 인물의 본질적 특성이 실현되는 방법에 따라 문화 체계를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에서 등장 인물의 본질적 특성이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로 양분된다면 ‘천상적 존재’의 가치와 ‘지상적 존재’의 가치가 실현되고,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한 문화 체계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심층구조 분석에서는 등장 인물의 행위자적 역할 중에서도 등장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본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의미 실현의 틀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리츠키는 등장 인물의 본질적 특성을 1) 생물물질적 특성(남성/여성, 동물/인간 등), 2) 사회적 특성(종족 관계, 혈연 관계, 인척 관계), 3) 정치적 특성(계급, 서열, 집단), 4) 경제적 특성(수렵, 어로)와 같은 행위자적 층위로 구분하였다. 이들 자질들은 등장 인물이 갖는 본질적인 자질에 해당하게 된다.²³⁾ 등장 인물이 갖는 이와 같은 본질적 자질은 다른 등장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등장 인물이 갖는 생물물질적 특성 중 ‘여성’이라는 속성은 ‘남성’이라는 속성을 지닌 다른 등장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관계는 모두 문화가 정해 놓은 규칙에 따른 것인데 문화가 정해 놓은 규칙들은 어떤 특성이나 자질의 있고 없음에 대한 대립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대립을 이루는 특성들은 자질의 있고 없음에 따라 내적 불균형 즉 비대칭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내적 불균형 즉 비대칭으로 인해 등장 인물의 본질적 자질은 ‘주도적/종속적’ 또는 ‘일반적/특수적’과 같은 위계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등장 인물이 본질적 자질에 의해 ‘주도적/종속적’ 관계에

23) James Jakób Liszka, *The semiotic of myth*, Indiana University, 1989, pp.121~125.

놓이는 것에 따라 문화의 가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²⁴⁾ 왜냐하면 한 문화의 가치 체계에 따라 등장 인물의 자질의 ‘주도적/종속적’ 관계가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텍스트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이는 곧 여성보다 남성을 보다 가치 우위에 두는 문화의 가치 체계가 드러난 것이다.

송효섭은 신화에서 등장 인물의 행위에 따른 행동 범주에 따라 의미 층위가 결정된다고 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²⁵⁾

첫째, 등장 인물이 신인가/인간인가 또는 천상에서 비롯되었는가/지상에서 비롯되었가에 따라 등장 인물의 생물물질적 특성이 드러난다.

둘째, 등장 인물이 왕으로 태어났는가/일반 백성으로 태어났는가 또는 귀한가/천한가에 따라 정치사회적 속성이 드러난다.

셋째, 등장 인물은 부자(父子), 모자(母子), 부부(夫婦)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가족혈연적 속성을 드러낸다. 가족 간의 서열 관계, 가족 성원 간의 이합 집산에 따라 등장 인물의 가치가 결정된다.

넷째, 등장 인물의 행동이 한 문화 안에서 갖는 윤리적 가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방법에 의해 등장 인물의 윤리도덕적 특성이 드러난다. 어떤 행위가 문화 속에서 선(善)으로 인식되는가, 악(惡)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기준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등장 인물의 행동은 한 문화가 갖는 경제적 가치 기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등장 인물의 어떤 행위를 그 문화 속에서 부(富)로 인식하는가, 빈(貧)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등장 인물이 어느 지역사회에 속하는가에 따라 등장인물의 지역 사회적 속성이 드러난다. 등장 인물이 속한 지역사회에 따라 등장 인물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한다.²⁶⁾

24) 윤교임, 「여성영웅신화 연구-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3~16쪽 참조

25) 송효섭, 앞의 책, 167~169쪽.

생물물질적 속성, 정치사회적 속성, 가족혈연적 속성, 윤리도덕적 속성, 경제사회적 속성, 지역사회적 속성에서 대립된 등장 인물의 행동에 따라 텍스트를 읽다 보면 신화의 대립된 사고나 가치관을 찾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의 대립된 사고나 가치관이 등장 인물 사이의 대립된 행동을 낳고 이것이 바로 신화의 서사 체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의미 범주는 신화 텍스트의 의미를 일관적으로 읽어내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하나의 의미 범주를 통해 한 편의 신화를 읽게 되면 그 신화에서 그 범주를 통해 드러내는 의미 층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하나의 범주를 의미 층위라고 한다면 여섯 가지 의미 층위가 설정된다. 등장 인물의 행위는 여섯 가지 의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치의 역동적 작용을 드러낸다.

본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추출된 의미 층위에서 의미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정방향에 의해 드러난다.²⁷⁾ 양분론적 가치드러 드러내는 형태론과 여기에 분포되는 등장 인물의 행위를 통해 한 의미 층위에서의 의미론적 세계가 드러나며, 양분론적 가치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긍정과 부정의 작용에 의해 이러한 의미론적 세계 안의 역동적 움직임이 드러난다. 기호학적 정방향에 의해 분절된 하나의 의미 층위는 다른 의미 층위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된다. 대체로 하나의 의미 층위에서의 작용이 주도적이고 또 다른 의미 층위에서의 작용이 종속적일 때 이러한 주종 관계를 만드는 맥락이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인데 이것 역시 문화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설화를 분석하여 기호학적 정방향으로 기술한 후 의미 층위 간의 위계를 설정하는 것은 설화의 문화 체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를 분석해 기호학적 정방향으로 기술하였을 때 그것이 제주도 뱀신화의 문화 기호 체계에 대한 기술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술에 작용하는 맥락 역시 제주도 뱀신화의 문화 기호 체계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26) 지역사회적 의미 층위는 <토산 여드렛당본풀이>가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에 대한 본풀이 입에 주목하여 필자가 설정한 것이다.

27) 송효섭, 앞의 책, 123~124쪽.

1) <칠성본풀이>의 심층구조 분석

장설룡과 송설룡이 원불수룩을 드러 태어난 아기씨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부모의 금기를 어겨 대스중과 사통하여 아이를 가진 죄로 무췌설잡 안에 감금·유폐되어 동해 바다에 버려진다. 무췌설잡 안에 감금·유폐되어 바다 위로 떠도는 동안 아기씨는 인간에서 뱀으로 존재 변환을 꾀한다. 아기씨가 낳은 여덟 자식 역시 뱀이다. 부모의 세계에서 추방 당한 아기씨는 새로운 세계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제주도의 본향 귀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병을 주는 방식으로 신성을 증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 영역의 일부인 고팡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확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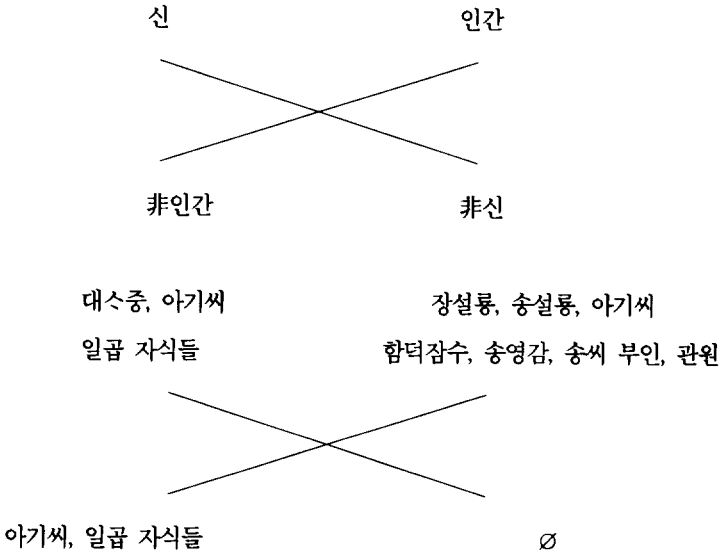
이에 <칠성본풀이>에 양분론으로 드러나는 등장 인물의 본질적 특성은 ‘신/인간’, ‘자연/인간’과 같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토착신/외래신’과 같은 정치 사회적 의미 층위, ‘부모/딸’, ‘부/부’와 같은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 ‘선/악’과 같은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 ‘부/빈’과 같은 경제사회적 의미 층위가 있다.

<칠성본풀이>의 아기씨는 부모가 정해 놓은 금기를 어김으로써 즉 가부장적 사회의 윤리를 거역함으로써 부모의 세계에서 추방 당하는 시련을 당하지만 아기씨의 시련은 가족혈연적 차원에서도 윤리도덕적 차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가족혈연적, 윤리도덕적 차원에 맞서는 어떤 신성한 가치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혈연적 가치와 윤리도덕적 가치가 신성한 가치에 수렴되고 있다. 이에 <칠성본풀이>의 지배적인 의미 층위는 ‘신/인간’, ‘자연/인간’ 양향 대립의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임을 알 수 있다. 즉 <칠성본풀이>는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 따라 이해해야 하는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1)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칠성본풀이>의 아기씨는 부모의 금기를 어기고 집 밖에 나갔다가 대스중을 만나게 되고, 대스중과의 가족혈연적 관계에 의해 신성에 감염되어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아기씨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부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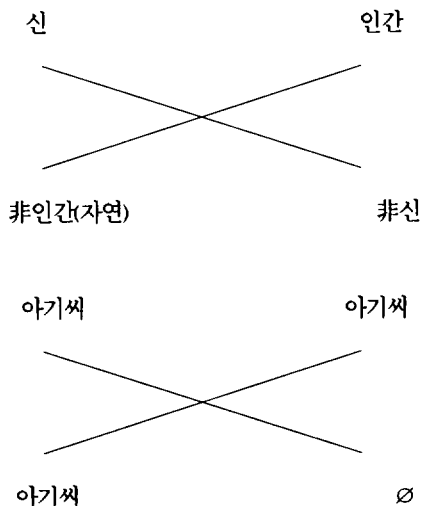
질서가 유지되는 인간 세계이다. 아기씨가 신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아기씨가 대스중의 신성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칠성본풀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된다. 이는 <칠성본풀이>를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대립이 <칠성본풀이>의 의미의 골격을 이루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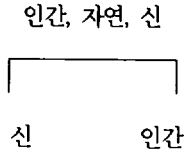
<칠성본풀이>에서 대스중은 장설룡과 송설룡이 원불수룩을 드린 범당의 중으로 나온다. 대스중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자, 신성에 감염 시키는 자로 분명한 신적 존재이다. 대스중은 신적 존재임에도 겉으로는 아기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천부작(一千浮雜)’을 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장설룡과 송설룡으로부터 ‘양반의 집에 스당공스’를 냈다며 쫓겨나는 인간적 존재로 나타난다.

아기씨는 대스중을 수용하는 존재로 대스중의 신성에 감염되어 대스중과 같은 의미 범주에 포괄된다. 아기씨는 처음에는 장설룡과 송설룡의 딸로 인간적 존재였다가 대스중의 신성에 감염되어 그 자신의 모습을 ‘인간→뱀’으

로 변화시킨다. 인간에서 뱀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아기씨의 생물물질적 특성이 인간에서 자연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기씨는 인간에서 뱀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신성을 획득하여 신적 존재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아기씨는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서 세 개의 의미 범주에 포함 되는데 이는 아기씨가 ‘인간적 존재→비인간적 존재→신적 존재’로 변신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인간이었던 아기씨가 뱀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다시 신으로 그 생물물질적 특성이 바뀌는 것으로 보아 인간적 존재가 자연적 존재로 변할 수도 있고, 자연적 존재가 신적 존재로 변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뱀’의 형상을 하고, 인간적인 것의 일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대접 받고 있다는 점에서 <칠성본풀이>의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는 인간적 가치가 자연적 가치의 중재에 의해 신적 가치에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

<칠성본풀이>의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를 볼 때 이 신화는 아기씨와 대스중의 부부 관계, 아기씨와 장설룡, 송설룡의 부모-녀 관계,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 간의 모녀 관계가 드러난다.

아기씨와 대스중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서 보면 함축 관계에 있다. 즉 대스중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아기씨가 신성이 있는 것이다. 인간적 존재인 아기씨가 비인간적 존재(뱀)가 되어 신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대스중과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하게 된다.

아기씨와 장설룡, 송설룡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서 보면 모순 관계에 있다. 즉 아기씨는 대스중의 신성에 감염되었지만 완전하게 신적 존재가 되지 못한 존재로서 부모의 세계에서 축출 당하는 애매한 비인간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은 모두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서는 비인간적 존재에서 인간적 존재로 변하는 같은 의미 궤적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의미 범주에 속하는 존재들이다. 이러한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의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대스중/아기씨	부/부	신/인간, 신/비인간
장설룡, 송설룡/아기씨	부모/녀	인간/인간, 인간/신
일곱자식들/아기씨	모/녀	비인간/비인간, 신/신

이와 같은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의 양향 대립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오는 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부장적 질서의 핵심이 되는 부모가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대스중과 같은 신적 존재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선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기씨는 부모와의 가족혈연적 관계에서 소외되고 부모의 세계에서 축출 당하는 고난을 극복한 후 신성을 획득하고 자식들 역시 신적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

<칠성본풀이>의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를 볼 때 이 신화에서 다스림이라는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아기씨와 대스중의 관계에 있어서 ‘귀/천’의 대립을 볼 수 있고, 아기씨(일곱 자식들)와 제주도 본향 귀신의 관계에 있어서 ‘외래신/토착신’의 대립을 볼 수 있다.

대스중은 장설룡과 송설룡에게 아기씨가 있는 곳을 알아보라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비천한 존재로 대접 받지만 아기씨는 양반집의 외동딸인 고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에서 ‘귀/천’의 양향 대립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 통합되고 있다. 대스중은 비록 양반에게 하대 받는 비천한 존재로 나타났지만 이는 드러난 모습일 뿐 그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 양반집의 고귀한 외동딸인 아기씨가 비천한 존재로 드러난 대스중의 신성에 감염됨으로써 ‘귀/천’의 대립은 신성이라는 생물물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방향에 통합되고 있다.

아기씨가 무쇄설캅에 담겨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들어가려는 지역마다 물이 세어서 들어가지 못한다. 아기씨가 들어가려는 지역은 모두 본향 귀신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아기씨와 제주도 본향 귀신의 관계에는 ‘외래신/토착신’의 양향 대립이 성립한다. 아기씨와 본향 귀신은 모두 신적 존재로 같은 생물물질적 특성을 지니지만 공간 확보에 있어서 아기씨는 밖에서 왔기 때문에 힘의 열세에 놓이고 있다. 즉 ‘밖에서 온 것’이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에서 아기씨는 낮은 위치에 놓인다. 아기씨는 이러한 낮은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이는 단지 신적으로 낮은 위치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신의 위치로 격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4)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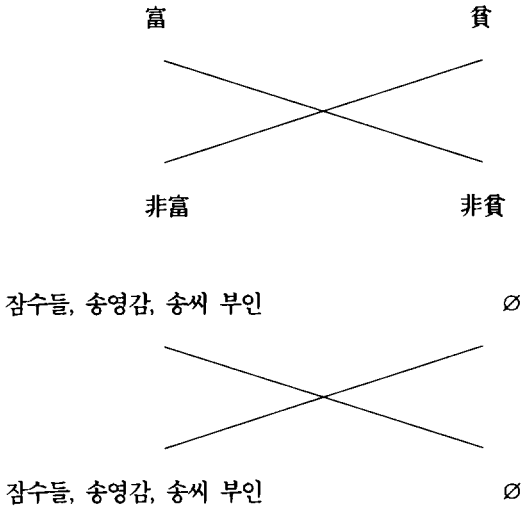
<칠성본풀이>에는 선악의 관념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가부장적 윤리가 지켜지고 있는 사회에서 대스중과의 사통을 통해 혼전 잉태를 했으니 아기씨는 윤리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징벌 받아 마땅한 존재로 인식된다.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에서 장설룡과 송설룡은 징벌하는 자가 된다. 이 징벌은 무죄설잡에 감금·유폐된 상태로 부모의 세계에서 추방 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아기씨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미 인간적 존재를 넘어선 아기씨를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감금·유폐와 추방의 형태로 징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징벌이 아기씨를 신으로 좌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에서 윤리도덕의 위반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징벌 역시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 수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 경제사회적 의미 층위

한 문화가 갖는 경제적 가치 기준을 통해 드러난 등장 인물의 속성은 경제사회적 의미 층위를 형성하게 된다. 등장 인물의 행위가 그 문화 속에서 경제적 부(富)로 인식되는가 빈(貧)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기준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富)와 빈(貧)은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고, 부(富)와 비부(非富)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모순적 관계에 있다. 부(富)와 비빈(非貧), 빈(貧)과 비부(非富)는 상보적 관계로서 비빈(非貧)은 부(富)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비부(非富)도 빈(貧)으로 될 수 있다.

<칠성본풀이>에서 아기씨와 일곱 자식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면 부를 가져다주는 신이다. 함덕 마을의 잠수들, 송영감, 칠성 마을의

송씨 부인은 모두 비부(非富)의 위치에 있었다가 아기씨와 일곱 자식을 신으로 대접함으로써 부(富)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즉 신으로 모시는가 모시지 않는가 하는 등장 인물의 행위에 따라 ‘부빈’의 경제사회적 의미 층위가 달라지는 것은 경제사회적 의미 층위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 수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6)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의 기아(棄兒)에서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의 수용(受容)으로

<칠성본풀이>에서 아기씨는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 경제사회적 의미 층위에서 신적 존재이자, 지배자이자, 부(富)를 결정하는 자로서 행위향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아기씨는 부모로부터 윤리도덕적 이유로 버림을 받지만 결국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신으로 그 위치가 격상된다. 따라서 <칠성본풀이>는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가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에 통합되고, 경제사회적 의미 층위가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에 통합된 후

최종적으로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 통합된다. 이 신화는 신적 질서가 인간 적 가치를 통합하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에서 아기씨는 부모가 정해 놓은 금기를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가 대사중과 사통하여 혼전 잉태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의 윤리를 어기게 된다. 그리고 사회의 윤리를 어긴 죄로 부모에게 버림 받는다. 즉 아기씨는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유평화된다. 이후 아기씨는 무쇄설갑 안에 담겨 바다를 떠돌으로써 유평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된다. 유평화된 상황을 무표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생물물질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무쇄설갑 안에 담겨 바다를 떠도는 동안 아기씨는 그 자신의 생물물질적 속성을 인간에서 뱀으로, 인간에서 신으로 영구적으로 변환 시킨다. 결국 생물물질적 차원에서 존재 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집안에 부(富)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수용된다. 기아(棄兒)라는 유평화된 상황을 수용(受容)이라는 무표화된 상황으로 만들으로써 위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계의 파괴	위계의 위기	위계의 회복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기아(棄兒)	영구적 존재 변환	수용(受容)

2)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심층구조 분석

나주 금성산에 좌정해서 신으로 모셔졌던 어진 한집님은 새로 부임한 목사에 의해 나주에서 쫓겨난다. 어진 한집님은 서울 종로 네 거리에 금바둑돌, 옥바둑돌의 모습으로 환생하여 떨어진다. 제주도에선 진상하러 올라 온 강씨 선주가 신기한 물건이라면서 금바둑돌, 옥바둑돌을 줍는다. 그렇지만 술도 먹지 못하는 쓸모 없는 것이라고 버린다. 금바둑돌, 옥바둑돌은 강씨 선주의 배에 탄생한다. 이 때문에 뱃발이 절어 배가 뜨지 못하자 세 선주는 무당에게 점을 친

다. 무당이 굿을 하여 배에 탄생한 신을 위로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굿을 하였더니 배는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한다. 어진 한집님은 우선 멥호부인에게 가서 제주도에서 좌정할 위치를 묻는다. 멥호부인은 좌정한 신이 없는 메떼기마루로 가라고 한다. 메떼기마루로 가던 어진 한집님은 개로육섯도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팔목을 잘라 버린다. 나주 금성산에서 축출된 후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토산 마을 메떼기마루에 좌정하였지만 아무도 대접하지 않자 왜선을 격파 시킨다. 이로 인해 왜적드려 토산 마을에 들어와 오씨 아기를 겁탈하게 된다. 겁탈 당하여 죽은 오씨 아기는 신을 모셔 온 강씨 선주를 원망하며 강씨 선주의 딸인 강씨 아미를 병들게 한다. 이에 강씨 아미를 살리기 위해 전세남굿을 하여 어진 한집님을 위로한다.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 양분론으로 드러나는 등장 인물의 본질적 특성은 ‘신/인간’, ‘자연/인간’과 같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토착신/외래신’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 ‘부녀’와 같은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 ‘선악’과 같은 윤리 도덕적 의미 층위, ‘축출 지역/수용 지역’과 같은 지역사회적 의미 층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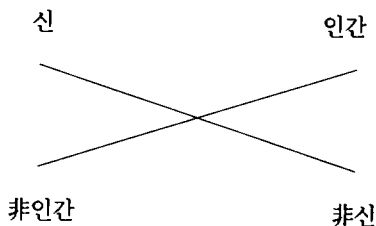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새로 부임한 목사에 의해 나주 금성산에서 쫓겨 나는 시련을 당한다. 신이 인간에 의하여 시련을 당하는 것이다. 이 시련은 한 지역의 목사에 의해 파송된 시련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시련이다. 그러나 어진 한집님의 시련은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어진 한집님이 스스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자신의 신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신으로 대접 받아 시련을 이겨낸다. 즉 정치사회적 가치가 신성한 가치에 의해 수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지배적인 의미 층위는 ‘신/인간’ 양항 대립의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임을 알 수 있다. 즉 <토산 여드렛당본풀이>는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 따라 이해해야 하는 텍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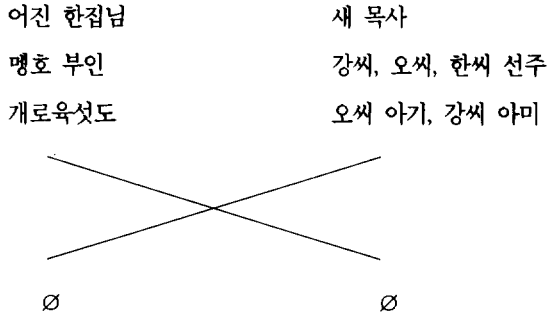
(1)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서 어진 한집님은 나주 금성산의 영기가 센 신으로 그 모습이 감춰져 있었다. 그러다가 ‘여자 → 친구아구대맹이(뱀) → 금

바둑돌, 옥바둑돌 → 여자 → 뱀'으로 그 겉모습을 달리 하면서 드러나는 존재가 된다. 모습이 감춰져 있을 때나 그 모습을 드러낼 때나 어진 한집님은 인간들에게 신으로 인식된다. 이에 어진 한집님은 드러난 존재는 매번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생물물질적 특성은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말발을 절게 하거나, 뱃발을 절게 하는 어진 한집님의 초월적 행위에 의해 알 수 있기도 하고, 어진 한집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기도 하다. <칠성본풀이>는 신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아기씨의 생물물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경우에는 등장 인물과의 관계, 다른 등장 인물의 인식에 따라 어진 한집님의 생물물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여자, 뱀, 금바둑돌, 옥바둑돌로 자유롭게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진 한집님의 능력을 통해 비자연적 능력을 지닌 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어진 한집님을 달래기 위해 굿을 하는 강씨 선주와 같은 등장 인물의 행위를 통해 인간으로부터 대접 받는 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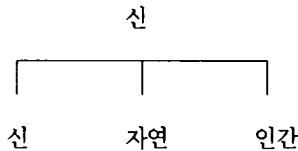
어진 한집님은 나주 금성산의 영기가 센 신이었다가 새로 부임한 목사에 의해 축출 당한다. 비록 신이지만 평범한 인간에 의해 배척 당하는 모습을 통해 신과 인간의 대립이 주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 목사에 의해 쫓겨 난 어진 한집님은 제주도 토산 마을 매떼기마루에 좌정하여 신이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 신으로 대접 받지 못하자 자신의 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신으로 인정 받게 된다. 공간이 이동되었지만 역시 신과 인간의 대립이 주된 갈등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의미 골격을 이루는 것이다.





신이 그 자신의 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드려 신으로 대접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아 인간적인 가치가 신적인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진 한집님의 신으로서의 존재 의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진 한집님이 신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획득하기 위해 인간에게 고난을 주어 신격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은 이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진 한집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자, 바둑돌, 뱀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 시킨다. 변신은 신이한 현상으로 신적 능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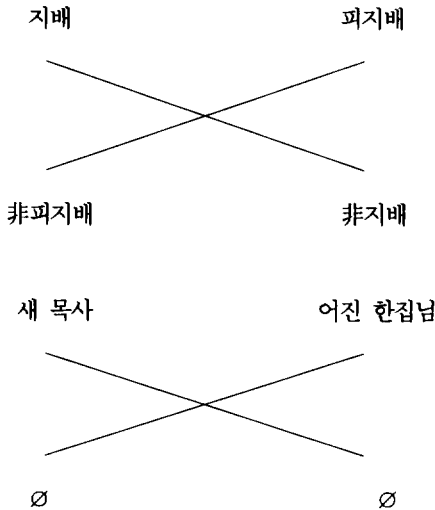


(2)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를 볼 때 이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스림이라는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즉 나주 금성산의 영기 센 신인 어진 한집님과 나주 목사 사이에

‘다스리는 자/다스림 받는 자’의 대립에서 ‘축출 당하는 자/축출하는 자’로 대립 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어진 한집님과 토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스리는 자/다스림 받는 자’의 대립이 성립하고 있다.

어진 한집님과 나주 목사는 나주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정치사회적으로 대립한다. 어진 한집님이 ‘주(呪)’에 의해 지배하려 한다면 나주 목사는 ‘유(儒)’에 의해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대결에서 어진 한집님은 패배하게 된다.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서 보면 신적 존재가 인간적 존재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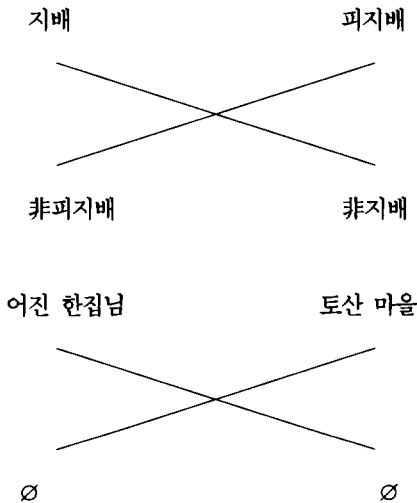


나주 지역에서 축출 당한 어진 한집님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려 한다. 즉 정치사회적 대결에서의 패배는 신적 존재에게 주어진 시련의 의미를 갖게 되고, 어진 한집님은 피지배의 자리에서 지배의 자리에 놓이기 위해 공간 이동하게 된다.

토산 마을의 메떼기마루에 좌정한 어진 한집님은 자신을 신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흉험을 내리고 신으로 인지하게 한 후 대접 받는 신이 된다. 이때 어진 한집님과 토산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지배자/피지배자’의 대

립이 성립한다. 주(呪)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어진 한집님은 나주 금성산에서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의해 축출 당하는 시련을 이겨내고 토산 마을의 당신이 됨으로써 피지배에서 지배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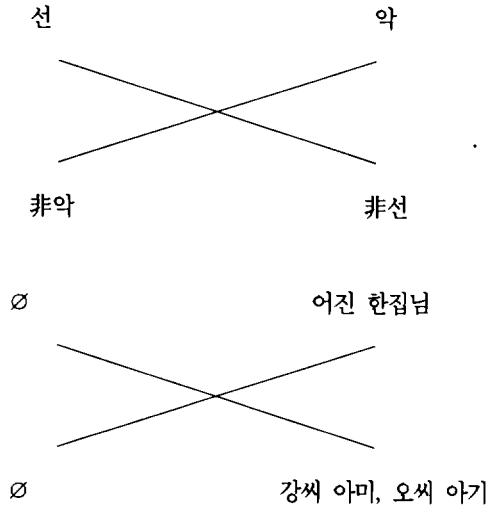


어진 한집님은 나주 지역에서 새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지배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토산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배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피지배의 자리에서 지배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계기는 새 목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신적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생기게 된다.

(3) 윤리도덕적 의미 총위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는 선악의 관념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진 한집님이 왜선을 격파하여 왜적들로 하여금 오씨 아기를 겁탈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윤리도덕을 어지럽히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진

한집님의 이런 행동은 악(惡)으로 인식되지 않고, 징벌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²⁸⁾ 오히려 신을 모시지 않은 강씨 선주를 비롯한 토산 마을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신이 홍해를 내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에서 사회의 윤리도덕을 위반한 신의 행동이 악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에서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 수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

어진 한집님이 홍해를 준 강씨 어머니와 강씨 선주 사이에 ‘부녀’의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의 대립을 찾을 수 있다. 강씨 어머니가 어진 한집님에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하여 홍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강씨 선주가 어진 한집님을 모

28) 아모스 와일더는 ‘신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적인 덕목들과 관계있는 어떤 특성이 아니라 신성한 성질 속에 있는 위엄, 고결함, 신성화됨, 영광, 힘 등과 같은 신의 속성’이라 말하였고, 루돌프 오토는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운 신비’를 느끼게 하는 ‘누멘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신성은 본질적으로 윤리적·도덕적 개념의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 신의 비도덕적 행위가 용납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모스 와일더는 박종성,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82쪽 재인용; 루돌프 오토, 김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본도출판사, 1987), 37~40쪽.

시지 않은 죄로 인하여 흥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강씨 아미와 강씨 선주 사이의 '부녀' 관계가 신적 가치에 의해 지배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을 모시지 않은 죄가 아버지에서 딸로 전해지는 데에서 어진 한집님은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모셔야 하는 신임을 알 수 있다.²⁹⁾

(5) 지역사회적 의미 층위

어진 한집님과 새 목사, 어진 한집님과 토산 마을 처녀들 사이에는 지역사회적 의미 층위를 설정할 수 있다.

어진 한집님과 새 목사 사이에는 '지배자/피지배자'의 대립에서 '축출 당하는 자/축출하는 자'로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가 달라졌고, 이로 인해 어진 한집님과 토산 마을 처녀들 사이에 '지배자/피지배자'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어진 한집님과 새 목사 사이의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의 대립과 어진 한집님과 토산 마을 처녀들 사이의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의 대립은 지역사회를 공간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즉 어진 한집님과 새 목사의 대립에는 '나주'라는 지역사회가, 어진 한집님과 토산 마을 처녀들 사이에는 '토산'이라는 지역사회가 있어 어진 한집님은 '나주'에서는 지배권을 상실하지만 '토산'에서는 지배권을 획득한다. '토산'이란 지역사회를 주(呪)에 의해 지배하게 됨으로써 어진 한집님은 토산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6) 정치사회적 위미 층위의 축출(逐出)에서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의 수용(受容)으로

<토산 여드랫당본풀이>에서 어진 한집님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정치

29) 실제로 토산 마을에서 어진 한집님은 딸에서 딸로 대를 이어 섬기는 신인데 이 마을의 처녀가 시집을 가도 그 뒤를 따라가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재앙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대를 이어 모시지 않을 수 없는 신이다. 또한 뱀을 신으로 모시는 토산 마을의 여자와 혼인을 꺼리거나 그들이 도시로 나왔을 때 집을 빌려 주기를 꺼리는 일도 뱀신이 따라다닌다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김영덕, 앞의 논문.

사회적 의미 층위에서 신적 존재이자, 지배자이자, 마을의 안녕을 결정하는 자로서 행위항적 역할을 수행한다. 어진 한집님은 원래 신으로 인정 받던 지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패배해 축출 당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내고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섬김을 받게 된다. 따라서 <토산 여드렛 당본풀이>는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가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에 통합되고, 가족혈연적 의미 층위가 지역사회적 의미 층위에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 통합된다. 이 신화 역시 신적 질서가 인간적인 가치를 통합하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서 어진 한집님은 나주 지역의 지배권 싸움에서 패배하여 새 목사에 의해 축출 당한다. 즉 어진 한집님은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에서 힘의 열세에 놓임으로써 유표화된다. 이후 어진 한집님은 종로 네거리에 금바둑들, 옥바둑들의 형태로 떨어져 유표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된다. 유표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물물질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즉 금바둑들, 옥바둑들의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변환하였기 때문에 강씨 선주의 눈에 떨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토산 마을에 들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생물물질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존재 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산 마을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격을 인정하게 만들어 마을의 당신으로 수용된 것이다. 축출(逐出)이라는 유표화된 상황을 수용(受容)이라는 무표화된 상황으로 만듦으로써 위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계의 파괴	위계의 위기	위계의 회복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축출(逐出)	일시적 존재 변환	수용(受容)

4. 제주도 뱀신화의 문화적 의미

1) 공간 확보를 통한 신성 증명

이야기에서 등장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은 일정한 방향으로 해결되는데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해결 방향은 등장 인물의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그런데 등장 인물은 이야기 속에서 일정한 공간 속에 위치하게 되고, 등장 인물이 차지한 공간은 일정한 범주를 형성하여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³⁰⁾ 신화 속에서 일정하게 범주화된 공간과 그 공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장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등장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를 읽을 수 있는데 이는 곧 신화가 드러내는 문화적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등장 인물이 드러내는 본질적 특성과 행위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은 신화의 문화적 의미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서는 등장 인물의 생물물질적 특성이 공간 범주에 따라 다르게 가치 평가되고 있다. <칠성본풀이>에서 아기씨의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서 드러나는 자질인 신적 특성은 원래의 공간에서는 거부되고 부정되지만 새롭게 이동한 공간에서는 수용되고 긍정된다.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도 어진 한집님의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에서 드러나는 자질인 신적 특성은 원래의 공간에서는 거부되고 부정되지만 새롭게 이동한 공간에서 수용되고 긍정된다.

<칠성본풀이>의 아기씨는 스님을 통해 신성에 감염되지만 가부장적 사회의 윤리를 어겼다는 죄로 부모에 의해 버려진다. 즉 원래 있었던 공간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새롭게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혜설잡 안에 감금·유폐된 상태로 바다 위를 떠다닌다. 이때 바다는 아기씨가 자신을 받아드려는 공간으로 가기 직전에 머무는 리미널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리미널 영역

30) 유리 로프만, 러시아사학연구회 편역,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열린책들, 1996), 13~43쪽 참조

을 거쳐 아끼씨는 자신의 신적 자질이 수용되는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위계의 파괴	위계의 위기	위계의 회복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기아(棄兒)	영구적 존재 변환	수용(受容)
장나라집)	바다	제주도(집 : 고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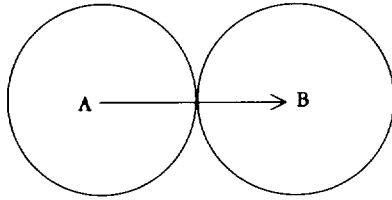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나주 금성산의 영기가 센 신이었지만 새로 부임한 목사에 의해 축출 당한다. 즉 정치사회적 힘의 우위에서 열세에 놓임으로써 자신의 공간에서 쫓겨 나게 된다. 그리고 새롭게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종로 네거리에 금바둑돌, 옥바둑돌의 형태로 변신하여 떨어져 있게 된다. 이때 종로 네거리는 어진 한집님이 자신을 받아 드려는 공간으로 가기 직전에 머무는 리미널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공간으로 유동성,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어진 한집님의 신적 가치가 인정되는 안정된 영역이 될 수 없다.³¹⁾ 그래서 어진 한집님은 자신의 신적 가치가 인정되는 안정된 영역으로 진입하여 신적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그 자신을 유표화한다.

위계의 파괴	위계의 위기	위계의 회복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축출(逐出)	일시적 존재 변환	수용(受容)
나주(금성산)	종로 네거리	토산(메뚜기마루)

<칠성본풀이>의 아끼씨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위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공간에서 ‘위계의 위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거쳐

31) 이본에 따라 어진 한집님인 나주 금성산에서 피신한 곳이 종로 네거리, 나주 길, 포구 등으로 나타나는데 모두 신이 좌정할 공간이 되지는 못한다.

‘위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동한다. ‘위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공간과 ‘위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뱀신화는 모두 다음과 같은 비회귀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의 입장에서 볼 때 A 영역은 부정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부정적 가치란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부정적 가치가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으로 하여금 A 영역을 탈출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B 영역은 긍정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긍정적 가치란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의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B 영역에서 비로소 신적 존재임을 인정 받고 인간의 복(福)을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는 ‘~을 얻는’ 소유의 가치보다는 ‘~이 되는’ 존재의 관념이 더욱 중요시되는 신화적 성격을 지닌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³²⁾

또한 아기씨는 집에서 나왔지만 다시 집을 자신의 공간 영역으로 확보한다. 부정적 가치를 가진 집에서 나와 긍정적 가치를 가진 집으로 들어 갔다는 점에서 A 영역과 B 영역의 집의 의미는 다르다. 어진 한집님도 산에서 나왔지만 다시 산을 자신의 공간 영역으로 확보한다. 물론 부정적 가치를 가진 산에서 나와 긍정적 가치를 가진 산으로 들어 갔다는 점에서 A 영역과 B 영역의 산의 의미는 다르다. 집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기씨가 좌정한 공간이고, 산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어

32) 송효섭, 「설화 등장 인물의 공간이동유형과 그 문화적 의미」, 『한국문학형태론 산문편』(일조각, 1993), 11쪽 참조.

진 한집님이 좌정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즉 신적 존재가 위치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같은 공간도 그 함축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신적 존재가 A 영역에서는 자질을 발휘할 수 없었고 B 영역에서는 자질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A 영역과 B 영역에서 달라진 것은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의 생물물질적 자질이다. 즉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위계의 위기를 겪으면서 존재론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변신은 신이한 현상이며 이를 행하는 주체 역시 보통 이상의 신이한 존재이다. 물론 아기씨의 경우에는 영구적 변환이고 어진 한집님의 경우에는 일시적 변환이기는 하지만 모두 위계의 위기 단계에서 존재론적 변환이라는 시련 극복을 통해 그 자신의 신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B 영역에서 신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이 좌정한 B 영역의 집과 산의 공간적 특성은 이들의 신적 능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칠성본풀이>의 아기씨는 원래의 집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의 윤리도덕을 어긴 죄로 부모로부터 기아, 추방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리미널 영역을 거쳐 존재론적으로 변환한 후 이동한 집에서는 인간적인 것의 일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수용된다. 특히 고팡은 제주도 가옥 구조에서 방 뒤쪽에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온돌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주로 곡식류를 항아리에 넣어 두는 저장 공간이다.³³⁾ 아기씨가 고팡을 신적 공간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고팡의 기능을 관장하는 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고팡에 저장해두는 곡식은 집안의 부(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아기씨는 집안의 부(富)를 관장하는 직능을 가진 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원래의 좌정했던 산에서 정치사회적 힘의 우위에서 열세에 놓임으로써 축출 당한다. 이후 길이라는 유동성의 공간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이겨내고 정착한 산에서는 인간적인 것의 일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수용된다.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으

33) 주남철, 『한국건축사』(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376, 396~397쪽.

로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신성한 가치를 가진 공간이다.³⁴⁾ 또한 산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그 산이 마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마을의 중심이자 신과 인간의 제의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다.³⁵⁾ 이에 어진 한집님은 산이 위치한 마을의 안녕(安寧)을 관장하는 직능을 가진 신이 된다.

2) 신성의경의 대상으로서의 뱀신

<칠성본풀이>의 아기씨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리미널 영역을 거친 후 존재론적 변환을 통해 신적 자질을 인정 받게 된다.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모두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뱀은 혐오감을 주는 모습으로 인해 사람드러 꺼려 하고, 독을 지녔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또한 그 습성상 산이나 농경지의 풀밭 지역에 서식하여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실제로 <칠성본풀이>의 함덕 마을 잠수들과 송영감, 도성 안의 관원들은 모두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아기씨를 보고 더럽고 재수 없는 것을 봤다면서 배척한다. 또한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서 어진 한집님은 멍호 부인의 가르침대로 토산 마을의 매떼기마루에 좌정했지만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다. 산에 좌정했기 때문에 그 신적 가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칠성본풀이>의 아기씨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이 배척되고, 비인지되어 신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뱀의 속성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아기씨가 혐오감을 주는 뱀의 생김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척 당했다면 어진 한집님은 산이나 농경지에 서식하는 뱀의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지되지 못한 것이다.

<칠성본풀이>의 아기씨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배

34) 미르치아 엘리아데, 앞의 책, 112~114쪽.

35) 제주도의 각 마을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을 모시는 ‘당’이 있다. ‘당’은 마을 당신의 주소(住所) 내지는 제장(祭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은 대개 마을의 입구에 있는 당집, 마을의 동산, 마을의 큰나무, 큰바위, 궤(窟)등에 위치한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집문당, 1986), 161~165쪽.

척되고, 비인지되는 유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배척하고, 비인지하는 사람들에게 급병과 흉협을 주는 방식으로 상황을 무표화시킨다. 즉 아기씨가 함덕 마을 잠수들, 송영감, 관원에게 급병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기씨의 신격에 대해 두려움과 함께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어진 한집님이 자신을 모시지 않은 강씨 선주에 대한 원망을 오씨 아기와 강씨 아미에게 흉협과 급병을 주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토산 마을 사람드러 어진 한집님에 대해 두려움과 함께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	신	인간
<칠성본풀이>	거부	급병	인정
<토산 여드랫당본풀이>	비인지	흉협	인정

이를 인간의 인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	인식	인식
<칠성본풀이>	두려움	신성함	성(聖)
<토산 여드랫당본풀이>	두려움	신성함	성(聖)

즉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신성의경(神聖畏敬)의 양가성을 지닌다.³⁶⁾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이 뱀의 생김새와 습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배척하게 되고, 이에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급병과 흉협이라는 신적 재앙을 내린다. 이러한 신적 재앙 때문에 아기씨와 어진

36) 김영희, 「도깨비의 양가적 이미지 고찰」, 『한국문화논총』 제27집(한국문화회, 2000), 188~190쪽 참조

한집님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또한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이 파송한 급병과 흉험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을 굶으로 달래고 신으로 모시게 된다. 신적 재앙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통해 사람드려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을 신성함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신성함의 대상이 되는 성(聖)의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³⁷⁾

<칠성본풀이>의 아기씨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모두 뱀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시련을 급병이나 흉험을 주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때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단골들에게 급병과 흉험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파송함으로써 단골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런데 단골드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결국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을 신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때 두려움은 곧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을 향한 종교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신비한 것에 대한 ‘최초의 슬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두려운 신비’를 느끼게 하는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³⁸⁾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이 ‘두려운 신비’를 느끼게 하는 신적 존재가 된 것은 뱀의 속성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뱀은 혐오감을 주는 모습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인간에게 공포의 감정을 일으켜 배척의 대상이 된다. 또한 민간에서는 뱀을 죽이거나 함부로 다루면 재앙을 받는다고 하여³⁹⁾ 숭배의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뱀에게 공포의 감

37) 엘리아데는 성(聖)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은 외경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엘리아데는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성(聖)의 양면적 속성으로 지적하였다. 미르치아 엘리아데, 앞의 책, 36~40쪽 참조.

38) 모든 신은 인간들로 하여금 ‘두려운 신비’를 느끼게 하는데 옷토는 인간들로 하여금 ‘두려운 신비’를 느끼게 하는 것을 ‘누멘적인 것 Das Numinöse’이라고 하였다. ‘누멘적인 것’은 윤리적, 중립적이며 독자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고유하고 근원적인 가치로서의 ‘성스러움’을 의미한다. 루돌프 옷토, 앞의 책, 37~40쪽.

39) 제주도에서는 집에 뱀이 들어와도 그 뱀을 거칠게 함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안

정과 함께 숭배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는 뱀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 성격과 관련된다. 이렇게 양가적 성격을 지닌 뱀에 대한 사람들의 신성외경(神聖畏敬)의 양가적 인식이 투사된 것이 바로 <칠성본풀이>의 아기씨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이다. 또한 뱀에 대한 신성외경(神聖畏敬)의 양가적 인식은 <칠성본풀이>의 아기씨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의 신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맥락이 되고 있다.⁴⁰⁾

뱀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신화에 형상화된 인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양가적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인식	혐오감과 공포감	신적 재앙
신화에 형상화된 인식	두려움	신성함

<칠성본풀이>의 아기씨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인간의 복(福)과 화(禍)를 관장하는 절대적 신성으로 인간의 우위의 신격이다.⁴¹⁾ 그러나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의 ‘복(福)/화(禍)’를 관장하는 절대적 신격으로서의 존재 의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여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인간이 신격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에 따라 신격의 의미가 결정

주할 곳으로 들어가기를 권유한다. 또 어린 아이드러 뱀을 보았을 때 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손가락이 썩는다고 하여 손가락질을 못하도록 한다. 한국정신문화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원, 1991』, 485~486쪽.

40) 현용준은 본풀이를 선악(善惡) 양사회의 갈등을 선(善)의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로서 승리한 선자(善者)를 신격화하는 이야기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신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신격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악(惡)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의 성격을 단순히 악(惡)으로만 파악한다면 신화 텍스트 안에 드러난 신격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악신(惡神)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두려움의 요소와 신성함의 요소를 동시에 가진 신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신화 텍스트에 드러난 문화적 의미에 가깝다고 본다.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58~59쪽.

41) <칠성본풀이>의 아기씨는 집안의 고팡에 좌정하여 곡식을 다스림으로써 집안의 부(富)를 관장하는 신이고,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마을의 산에 좌정하여 마을의 안녕(安寧)을 관장하고,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다. 이때 집안의 부(富)와 마을의 안녕(安寧)은 모두 인간의 복(福)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칠성본풀이>에서 뱀의 형상을 한 아기씨를 보았을 때 송씨 부인은 신으로 위하여 대접하였지만 관원은 더럽고 재수 없다면 서 침을 뱉었다. 아기씨는 송씨 부인에게는 신격을 인정 받았지만 관원에게는 인정 받지 못한 것이다. 인간이 신적 대상이 드러내는 초월적인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다. 즉 인간이 신을 숭배할 때 신은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대로 신을 부정할 때 신은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것 또한 뱀신이 지닌 양가적 성격이고, 이 양가적 성격은 신과 인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이방인의 긍정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서 인간과 신의 양향 대립은 ‘내(內)/외(外)’의 양향 대립으로 투사되고 있다. <칠성본풀이>의 아기씨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모두 밖에서 들어온 신으로 ‘외(外)’에 해당하지만 그 신을 받아 들이고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 제주 사람들로 ‘내(內)’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내(內)/외(外)’의 양향 대립이 드러나는 방법을 통해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서 ‘내(內)/외(外)’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인간 내(內) 토착민	신 외(外) 이방인
<칠성본풀이>	함덕 잠수들 송씨 영감 송씨 부인 관원	아기씨 일곱 자식들
<토산 여드렛당본풀이>	강씨 어머니 오씨 아기 강씨 선주	어진 한집님

내외(內外)의 양분은 가치의 양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내(內)’는 ‘우리들의 것’, ‘나 자신의’, ‘문화적인’, ‘안전한’, ‘조화로운’ 등으로 나타나지만 ‘외(外)’는 ‘그들의 것’, ‘다른’, ‘적대적인’, ‘위험한’, ‘혼란스러운’ 등으로 나타난다. ‘내(內)’와 ‘외(外)’에서 등장 인물의 움직임은 양분된 가치의 통합 과정을 드러낸다.⁴²⁾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원래 자신의 공간에서 기아(棄兒)·축출(逐出)됨으로써 유표화된 존재로 리미널 영역을 거쳐 제주도 들어 왔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즉 ‘적대적인’,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외부 공간의 인물이 내부 공간에 진입할 때 그것이 내부 공간의 인물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분리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이 지닌 신적 능력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내(內)’의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 수용된다. 즉 ‘외(外)’에서 들어 온 존재에 의해 ‘내(內)’의 사람들의 복(福)과 화(禍)가 결정됨으로써 외부 공간에서 온 존재에 의해 내부 공간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내부 공간의 질서가 외부 공간에서 온 존재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는 섬 지역이다. 섬 지역은 해양문화권에 속함으로써 ‘모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⁴³⁾ 섬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문화에 대한 모방적 성향이 매우 강해지는 것이다.

제주도 본풀이의 신을 그 출현 방식에 의해 구분할 때 하늘로부터 하강해 온 신도 있고, 땅에서 솟아난 신도 있고,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온 신도 있다. 특히 바다 건너 온 신은 대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물자가 풍부한 나라, 인간 생활에 복리(福利)를 주는 신의 나라,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낙토(樂土)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⁴⁴⁾ 섬이라는 지역적 조건에 의한 ‘외(外)’에 대한 지향이 ‘바

42) 송효섭, 앞의 논문, 9~23쪽.

43)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학연문화사, 2003), 209~249쪽.

다 건너 온 신', '육지에서 온 신'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서 아기씨와 어진 한집님은 물자가 풍부한 나라나 낙토(樂土)에서 온 신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로 집안의 부(富)와 마을의 안녕(安寧)을 결정하는 신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섬 문화의 외부 공간에 대한 긍정, 지향, 모방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바다 건너 온 신', '육지에서 온 신'의 걸모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칠성본풀이>의 아기씨나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모두 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뱀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걸모습과 생태로 인해 사람들의 혐오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몇 번이고 허물을 벗는 불사(不死)의 상징으로서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있는 동물이기도 하다. 뱀신화 생산자들은 이러한 뱀에 대한 혐오감, 이해할 수 없음, 신비감 등을 '외부에서 온 신이다'라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였고 이것이 뱀신화의 신격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이상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여 제주도 뱀신화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을 해 보았다.

본토에는 뱀신을 재물신으로 관념했다는 것을 설화를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만 제주도에는 뱀신의 신격과 뱀신앙의 분포 범위에 따라 뱀신에 대한 본풀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제주도에만 전해지는 뱀신화는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이 필요함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자연의 토대 위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적, 정신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는 문화는 다양한 기호를 통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신화는 서사 구조를 통해 신, 인간, 자연 등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화의 해석소 역할을 하는 일종의 기호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인 <칠성본풀이>, <토산 여드렛당본풀이> 역시 뱀신의 좌정 과정을 담은 신화 텍스트로서 문화의 해석소가 된다.

2장, 3장, 4장에서는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는 뱀신화로서 문화의 해석소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 두 신화의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분석을 통해 문화적 의미를 밝혀 보았다.

2장에서는 <칠성본풀이>의 이야기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이야기를 몇 개의 문형으로 요약하고, 표층구조를 분석하여 등장 인물의 행위향적 기능과 역할을 밝혔다. 3장에서는 등장 인물의 본질적 특성을 그레마스의 기호학적 정방형에 분포시켜 이야기 체계 속에 보편화되어 존재하는 가치 체계를 밝혔다. 그리고 등장 인물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가치 평가가 ‘위계의 파괴’, ‘위계의 위기’, ‘위계의 회복’이라는 서사의 단계별로 달라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 결과 <칠성본풀이>의 아기씨는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 경제사회적 의미 층위에서 신적 존재이자, 지배자이자, 부를 결정하는 자로서 행위향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어진 한집님은 생물물질적 의미 층위,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에서 신적 존재이자, 지배자이자, 마을의 안녕을 결정하는 자로서 행위향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칠성본풀이>에서는 아기씨가 부모가 정해 놓은 금기를 어김으로써 윤리도덕적 의미 층위에서 ‘위계의 파괴’가 이루어졌지만 아기씨가 그 자신의 생물물질적 속성을 인간에서 뱀으로, 인간에서 신으로 존재 변환하는 ‘위계의 위기’를 겪은 후 제주도 사람들의 부(富)를 관장하는 신이 됨으로써 ‘위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에서는 어진 한집님이 나주 금성산에서 새 목사와의 지배권 싸움에서 패배한 후 축출됨으로써 ‘위계의 파괴’가 이루어졌지만 어진 한집님이 종로 네거리에 금바둑돌, 옥바둑돌의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변환하여 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

계의 위기'를 겪은 후 제주도 토산 마을에서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이 됨으로써 '위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2장의 표층구조 분석과 3장의 심층구조 분석을 토대로 하여 4장에서는 제주도 뱀신화의 문화적 의미를 규명해 보았다. 그 결과 제주도 뱀신화는 1) 원래의 공간에서 버림 받은 뱀신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신성을 증명하고 수용되는 이야기, 2) 두려움과 신성함의 양가적 성격을 지닌 신성외경(神聖畏敬)의 대상으로서의 뱀신의 이야기, 3) 뱀신의 수용을 통한 섬 지역의 모방적 문화가 표현된 이야기로 그 문화적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그 동안 뱀신화 연구에 있어서 뱀신화의 의미는 제의적 맥락과 관련되어 연구됨으로써 뱀신화 자체가 드러내는 서사적 의미가 간과되었다. 이에 반해 이 글은 뱀신화의 일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칠성본풀이>와 <토산 여드렛당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통해 드러난 문화적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도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주도 뱀신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자료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집문당, 200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1996.
 赤松智城·秋葉降, 『朝鮮巫俗の研究』, 신한서림, 1937.

2. 단행본

- 김광언, 『한국의 집지킴이』, 다락방, 2000.
- 김명자 외, 『민속문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집문당, 2002.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_____, 『현대기호학 강의』, 민음사, 1998.
- 김영일, 『한국무속신화의 서사모형론』, 세종출판사, 1991.
- 김인희,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 서정목, 『문법의 모형과 핵 계층 이론』, 태학사, 1998.
-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3.
- _____,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2002.
- _____, 『설화의 이해』,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안진태, 『신화학강의』, 열린책들, 2001.
-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3.
- 이인식, 『신화상상동물백과사전 2』, 생각의 나무, 2005.
-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제 3의 민속학』, 당대, 2002.
-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99.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 최현무 외, 『한국문학과 기호학』, 문학과 비평사, 1992.
- 한국정신문화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한국정신문화원, 1991.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 안느 에노, 『기호학으로의 초대』, 어문학사, 1997.
- 그레마스, 김성도 편역, 『의미에 관하여』, 인간사랑, 1997.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종교의 본질』, 학민사, 1995.
- _____, 이재실 역, 『종교사개론』, 까치, 1994.

- 노드롭 프라이, 이상우 역, 『문학의 원형』, 명지대학교출판부, 1998.
- 야콥슨 외, 조주관 역, 『러시아 현대비평이론』, 민음사, 1993.
- J. 꾸르뎀, 오원교 역, 『담화분석을 위한 기호학입문』, 신아사, 1986.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3.
- 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세계의 영웅 신화』, 대원사, 1996.
- _____, 이진구 역, 『신의 가면 1-원시 신화』, 까치글방, 2003.
- 루돌프 오토, 길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분도출판사, 1987.
- S. 리몬-케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94.
- 시몬드 비에른느, 이재실 역,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 유리 로트만 외, 러시아시학연구회 편역,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 열린책들, 1996.
- 빅터 터너, 김익두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현대미학사, 1996.
- 월터 J. 옹, 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3.
- Alan Durant, Nigel Fabb, *Literary studies in action*, Routledge, 1990.
- James Jakób Liszka, *The semiotic of myth*, Indiana University, 1989.

3. 논문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김동섭, 「토산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영덕, 「제주도의 사신신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김영숙, 「제주도 일반 신본풀이의 성격화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영희, 「도깨비의 양가적 이미지 고찰」, 『한국문학논총 제 27집』, 한국문학회,

2000.

김화경, 「차사본풀이의 구조 분석」, 『인문연구 제 14집 2호』, 영남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1993.

김희영, 「기호학적 비평의 이론과 실제」, 『문학과 비평 봄 창간호』, 탑출판사,
1987.

김홍철, 「한국사릉설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문무병, 「제주도 사신신앙연구-사신의례를 중심으로」,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회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2.

박종성,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배원룡, 「변신설화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소재영, 「제주지역 설화 문학의 비교 연구」, 『승실어문 제 11집』, 승실어문학
회, 1994.

송효섭, 「국문학 교실에 <텍스트>는 있는가」, 『세계의 문학 제 20권 3호』, 민
음사, 1995.

_____, 「단군신화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석정 이승욱 선생 회갑 기념 논총』,
석정 이승욱 선생 회갑 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1991.

오유미, 「중국 뱀신화의 상징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유정월, 「트릭스터담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윤교임, 「여성영웅신화 연구-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에 대한 문
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상일, 「변신설화의 이론과 전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8.

이수자, 「구렁이업 신앙의 성격과 형성 기원(1)-칠성맞이제 및 칠성본풀이와
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보 5』, 한국민속학회, 1995.

_____, 「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이화어문논집 제 11집』,
이화어문학연구소, 1990.

_____,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임갑량, 「뱀설화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원성학, 「뱀변신설화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2004.
- 정주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 대비 연구- 가족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천진기, 「한국 띠동몰상징체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한창훈, 「제주도 무가 연구의 검토와 전망」, 『백록어문 제 17집』, 백록어문학회, 2001.
- 허용호, 「한국신화의 제의적 서사규약과 소통원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현길언, 「사신설화의 고찰」, 『석주선박사 회갑기념 민속학논총 II』, 석주선박사 회갑기념 논총간행위원회, 1982.
- 현용준, 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岸本孝根, 「韓·日 뱀說話 비교 연구-제주도와 오키나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